

# 1976년을 보내며

李 春 相 新洋建築事務所.

## 1. 1976년

바람이 차다. 초 겨울의 문턱에 서있다. 年頭辭를 읊은적이 數日前처럼 느껴지는데 벌써 今年을 다 보내고 한장의 Calander 만 남아 있다. 거창한 計劃아래 할일도 많다고 생각 했고 해야 할일도 많을 줄 알았는데 별로 진전 없이 지냈다.

會員의 福祉向上, 建築士의 資質向上을 외치는 建築士協會 또한 별다른 結果가 없다는 것, 해를 다 넘기며서 혼히 생각 된다.

建築行政의 뒤바뀔속에서 建築士의 面貌를 찾아 가고 있다고 생각 했다면 矛盾된 말일까?

주어진 일 속에서 責任感이 더 강하게 되었고 建築行政處理를 더 많이 알아야 했고 技術的인 果題가 뛰어 나야 했던것이 사실이었었는데 왜 지금 와서 떠들석 한지도 모르겠다.

지금까지 安逸無事主義로 일에 臨했다는 것은 그만큼 모든 일에 忠實치 못했다는 結果밖에 없다.

建築士 資質 向上을 爲해 굳건한 意志와 上下 一体속에서 強한 運命共同体 意識과 連帶責任感을 가지고 協同속에서 저마다 努力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이것이 나個人이 사는 길인 동시에 우리라는 建築士共同체가 살수 있는 길인 것이다.

1976년도 다 갔다. 나는 反省해 본다.

1977년이 온다. 두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1977년을 위해 새로운 마음으로 創造的 自己 表現을 해 보겠다. 나의 天職과 使命을 自覺하고 온 精誠과 情熱을 쏟겠다.

時間을 다루며 바뀌는 都市의 面貌, 建物の 造形美, 都市計劃 等 建設의 이모저모가 우리 建築士 Idea, 創造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때 뿌듯한 喜悅을 맛볼 수 있다.

작품을 만든다는 것, 芸術을 創造한다는 것은 온 情熱을 쏟는 것이며 자기의 뼈를 깎는 것이다.

創造는 若腦과 榮光으로 彩色된 生の 보람이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價值가 있고 意味가 있는 것이다. 建築士의 創造의 힘, 이처럼 보람 있고 위대한 힘이 또 어디 있을까?

이런 보람속에서도 不惑之 年을 보내게 되니 섭섭하며 아쉽기만 하다.

우리 모두의 살림살이가 經濟成長에 발마추어 一面總力 安保와 一面 國家 建設에 盡力하며 운택하여지는 生活속에서 各自가 自己業務에 充實하며 産業 都市, 觀光都市, 住居 都市 建設에 모두 힘을 傾注하며 지내왔다.

우리 家庭이 和睦하며 우리 동네가 和睦하고 여기에 우리 都市와 國家가 내 피부에 더욱 따스한 입김을 불어 준다. 이와 같아서 내 事務所에서 조그마한 設計作品(作品이라 부르는 부끄럽지만 나의 精誠이 깃들었기에)을 꾸미다 보면 이웃을 잊어 버리고 지내다가 문득 느낄 때는 우리 協會에 처한 어떤 渴望을 느낄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우리가 서로 무엇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도와 주었는지? 얼마나 참여하여 올바른 이야기를 하였는지? 또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 2. 法과 建築士

/ 우리의 社会生活 樣式이 複雜性을 띄우게 됨에 따라 우리가 지켜야 할 테두리가 많아졌으며 그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다.

社会 規範속에는 各自에게 最少한 共通된 法이 있을 것이다. 나는 法学徒가 아니므로 모든 것을 論할수도 없고 그 資格도 없다. 다만 나의 業務取級에 不可分 한 것이 建築法이다.

法이란 모든 것을 規制할 수 있는 滿足한 法은 限이 없을 것이다. 그러기에 建築法이 10余年間에 다섯번 바뀌고 그 施行令은 일곱 차례나 改正되었다. 建築士가 法과 施行令을 채 외우고 理解하기도 前에 改正되니 業務處理에 많은 隘路를 느낀다. 그 뿐인가 各自 나름대로의 法解釋, 各 都市마다 다른 條例, 訓令等……이것을 다 외우고 理解하며 設計를 하자니 建築士가 된것 보다 오히려 法律家가 되어 建築法을 講議하는 것이 設計보다 빠를것 같다. 勿論 이것은 都市 社会의 急進의인 膨脹에 뒤따른 法の 改正과 條例라 믿고 自慰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附合 되도록 建築士 法도 改正되어 建築法에 뒤따라야 할 것이다.

建築士들은 어떻게 된 것인지 建築法에 발마추지 못하는 士法으로 業務를 處理하자니 自己 矛盾과 自家撞着에 逢着하게 된다. 여기서 建築士가 落後되고 權利를 못 찾고 犠牲者가 나오고 混亂을 招來하게 된다. 이러한 士法の 改正은 建築士 協會에서 좀 더 움직여 과감한 法の 改廢을 하여야 할 것이다. 오죽 답답하면 行政 当局에서 住宅 建築 許可節次 改善方案이 나오며 또 그것이 施行되고 있다. 事實 建築士로서는 부끄럽고 人格에 冒瀆을 느끼는 일이다.

조그마한 茅屋에서부터 大關같은 豪華住宅에까지 過程이야 어쨌던 建築士가 設計를 하고 建築法에 適法하게 許可를 받아 建築을 하였을 것이다. 그것이 왜 竣工時에는 엉뚱한 집이되고 또 그것을 自己가 責任을 질 줄 모르는지? 三人, 五人이 共同 責任을 지라고까지 되었으니 이런 建築士들을 爲하여도 建築士 法이 改正되어 내 權利와 義務를 아는 建築士를 保護하는 法이 되어야 할 것이다.

法은 萬人에 公平하다. 그러나 法은 善을 保護 하고 惡을 除去하는 것이다. 建築士라고 恒常 保護만 받겠다는 것은 큰 誤算이다.

앞에서도 記述 하였지만 建築士가 오랏줄에 묶은것 같이 三人, 五人連帶 責任制란 참으로 通歎하며 왜 이렇게 轉落하였나 하고 괴롭기만 하다.

우리가 發展的으로 우리 業務를 保護하고 零細性을 떠나서 서로의 技量을 겨르며 協同心을 發揮하여 스스로 合同事務所를 充足시켜 國家와 國民에 俸仕하며 國家에서 保護해주며 國民이 信賴할 때 一個 建築士로서 보람을 느끼며 人生의 喜悅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法을 지키지 않고 그 法을 保護 善用하여야 될 建築士가 自己 処身을 잘못 할때는 그것은 한 人生의 終末을 告하는 것이다.

## 3. 建築士와 建築士協會

왜 우리는 建築士 協會에 對하여 論하는 때가 많은가?

建築士란 國家에서 施行한 考試에 合格하여 建設部長官의 免許 取得으로 建築士란 칭호를 받게되는 것은 既知의 事實이다. 그러나 여기서 建築士라 하는 것을 便宜上 設計 事務所를 開設하여 登錄한 建築士를 稱한다고 前提하고 풀어가기로 한다.

우리는 十餘星霜에 協會의 發展相 과그 자취를 잘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外形의인 것(協會의 會館, 會員의 增加 予算의 膨脹等)이었지 좀 더 알찬 協會는 못 된것 같다. 勿論 其間的(的)外的 與件 때문에 充實한 發展에 阻害가 있었다고 看做한다. 앞으로는 內實이 있는 協會로 發展할 것을 바란다.

우리 會員은 協會에서 決議되면 그대로 따르고 會費를 내라면 잘 納付하여 왔다. 이제는 協會가 盤石위에 놓였으니 모든 事業計劃 施行에 錯誤가 없기를 바란다.

會員이 協會에 바라는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다. 우리가 周圍에서 느끼는 것, 業務에 좀 더 보탬이 되도록 요구 한다.

每年 年末이 되면 莫大한 予算案을 可決하고 雄大한 事業 計劃을 確定 짓는다. 그러나 그 다음 해의 決算時에는 獨特한 業績이 없이 끝난다. 우리 周圍에서의 쉬운 일을 풀어 나가는 것이 業績이다. 내 나름대로 몇 가지 엮어 보려 한다.

우리 事業 計劃에 海外 建築界 視擦派遣이 있다. 全會員이 納付한 會費로 모두가 參與할 수는 없으니 各自時間的 其他 與件이 갖추어지는 會員이 몇사람 다녀 온다. 나는 그 報告를 會誌를 통해서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外國의 어떤 學術的인것 即 國內에서 開發이 되지 못한 建築資材, 施工方法 設計 作品에 對한 研究檢討와 報告會 등이 우리에게 發展的이고 進取的인 것이다. 國民 學校學生이 서울 求景을 하고 시골로 돌아가서 紀行文을 쓰는듯한 報告는 우리에게 必要한 것이 아

니다 勿論 부드러운 筆體로 紀行文도 쓸 수도 있다. 허나 海外 視察團 과정까지의 事業 計劃을 施行하려면 予

算과 貴重한 外貨의 價値를 認識할때 遊覽하는 式의 海外 視察團 派遣은 再考할 余地가 있으며 最少限 視察團이 歸國後 一定한 論理的인 report 는 提出하여 좀더 工夫하는 建築士가 되도록 誘導하여야 될 것이다.

앞에서도 論하였지만 建築士는 事務所 開設 登錄을 하여야 業務에 臨할 수 있다.

그러나 往往 그렇지 않은 事態가 벌어져서 協會에서 그것을 阻止하려고 予算과 勞力を 아끼지 않고 있다. 지금은 많이 是正되었지만 二重職이란 것이 業界를 混亂시켰다.

예를들면 教職者(특히 大學教授)가 어떤 設計 用役에 參與하여 營業을 할때가 있다. 그것이 正當한지 非違인지는 各自 良心에 呼訴한다.

우리나라는 教育熱이 大端히 높다. 建築設計 監理를 하다보면 시골 山間 僻村에도 中高校가 있어서 더우나 추우나 學校에서 工夫하는 것을 보니 中高校 教育은 國民一般教育으로 擴大되어 훌륭한 國民이 養成 된다.

여기에 맞추어 大學教育도 너나 할것 없이 進學 하며 現社會에서 大學入試가 社會問題化 되고 있다. 그 入試의 難關과 莫大한 登錄金을 納付하고 修學하는 大學生들

教職者는 이러한 專門教育을 받고져 하는 英才들에게 새로운 知識과 새로운 講議를 할려며는 學門研究 檢討의 時間에 쫓길 터인데……어떻게 一般實務 營業을 하며 또 그러한 教授에게서 講議받는 學生들은 自己의 勞力과 登錄金이 아까웁지 않은지?

外國에서는 教授도 一般實務 營業을 할 수 있도록 法이 보호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萬若 教授가 受注하여 營業을 하면 學生은 自己自身을 爲한 講議 研究에 時間을 割愛치 않는 教授는 排斥하며 그 學校 財團에서는 그런 教授는 學界에서 물러나게 하며 如何는 어떻게 學術 研究에 바쁜 教授에게 設計를 依賴할 수 있느냐 고返問한다.

또한 教授들은 自己 弟子들이 社會에서 活動하도록 끊임없이 指導를 하여야 한다. 自己 權威主義的 陶醉感을 버리고 建築界의 淨化를 바라는 것이 우리 協會를 爲하고 自身을 爲하는 것이다.

우리 協會에서는 會員의 質의 向上과 會員의 教育을 爲하여 指導 事業이 있으며 많은 予算도 策定되어 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거창한 予算과 指導보다 가까운 데서부터 고쳐야 할 것이다. 우리 首都 서울이나 地方을 莫論하고 거의 모든 建築物는 建築士를 거쳐 이루어진 設計다. 그런데 때로는 얼굴을 들 수 없도록 粗雜한 것이 있다. 언제부터 누구의 作亂인지? 開

發地域에 나가 보면 住宅이라는 것이 도대체 設計를 한 것인지…어디서 模倣을 한 것인지? 알 수 없도록 이상아릇한 住宅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왜 이런 設計와 이러한 配置를 하여야 되는지? 흔히 들 집 장사 집이라고 한다. 집 장사 집이라고 假定하자 그것으로 自慰가 되는가? 집 장사가 設計를 하고 집 장사가 監理를 하였단 말인가? 누구이든 간에 建築士가 設計를 하고 監理를 하였을 것이다. 이것은 技術 이전에 精神的인 姿勢問題이다. 그것을 設計라 하고 그런 住宅을 數十棟 數百棟을 建築 許可를 내어주고 致富하였다고 自負한다면 차라리 어려운 大學 工夫보다 市場에서 장사나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品位를 우리가 保存하여야 한다. 設計다운 設計를 하고 훌륭한 建築家의 先輩를 능가할 수 있도록 努力하며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우며 草家三間이라도 우리의 技量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建築主가 모르는 것은 가르쳐 주고 그 家庭과 環境에 맞도록 引導하여 都市空間 構成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이러한 例도 協會에서는 조그마한 일이라 생각지 말고 關心을 두어야 할 것이다. 圖書登錄이라 해서 아무렇게나 된 設計書에 회비 징수하고 도장이나 찍는 것을 願하지 않는다. 會員의 指導 事業에 올바른 座標를 세우고 方向 設定을 하여야 될 것이다. 내 周圍가 淨化될 때 우리 團體가 淨化되며 社會의 부조리는 척결된다.

協會 運營에 內面的 制度的 矛盾點도 있다. 今年에는 協會 予算의 統一性을 期한다고 下向式의 予算 係인 統合 予算을 完全히 이루어 놓았다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協會 機構組織 偏成에 對한 正 關係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莫大한 予算이 所要되는 分所의 統廢合 이라던가 再偏成이 있어야 할 것이다. 協會에는 여러 가지 運營規定이 있으나 分所의 運營規定이 弱하다. 따라서 分所는 分所本然의 任務보다 膨脹하여 越權行爲가 많다. 이것은 協會에 對한 會員의 怨聲을 들을 수가 있다. 分所는 會員의 圖書登錄의 便宜에 必要性을 느끼어 設置되는 것이다. 그것이 變質되어 自己 分所會員끼리 團合하여 協會(支部) 運營에 힘을 加하는 式(특히 總會時)은 큰 잘못이다.

나는 地方支部(分所)에 出張가는 境遇가 많다. 그때면 그 支部(分所)의 職員과 會員들은 그 地方의 條例라든가 內規에 對한 說明을 하여주고 建築許可申請圖書를 條例에 맞게 친절히 가르쳐 줄 때 고마움을 느낀다. 그런데 어떤 會員은 地方에 가면 地方色을 나타내는 不便을 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서로의 誤解와 他地部 會員이 自己 高장에 왔다는 氣分에서 비록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서로 가까이 지나고 친절하면 總會에서 論議  
되었던 所屬支部에서 圖書登錄을 하자는 案이 안 나왔  
으며 客地에 나가서 그 地方의 支部에 가서 圖書登錄  
을 하고 業務取級에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便利할 것  
이다.

이렇듯이 協會는 高次元의보다 우리 周圍에서 眞理를  
찾고 會員의 品位와 權益옹호에 研究하여 주기 바란다.

#### 4. 1977년

이제 생각나는대로 筆이가는 대로 몇마디 엮어 나갔다.

1977년은 四次 五個年 計劃의 첫 해이다. 1976년은 建  
築活動의 伸張率이 鈍化된 것으로 統計가 나왔다. 우리  
會員들은 많은 苦難을 겪고 참으며 國家建設에 役軍이  
되었다고 自認하고 싶다.

“나라는 내 自身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느끼며 앞으  
로도 어떤 方向과 어떤 進路가 “나”를 “爲하고 내 家庭  
을 爲하고 어떤 것이 國家를 爲하는 것인가를 認識하여  
야 할 것이다. 先輩는 後輩를 사랑하고 아끼고 後輩는  
先輩를 존경하고 서로 自立精神과 協同으로 처할  
때 모두 發展하고 신뢰될 것이다.

우리의 生命은 永遠한 것이며 所重한 것이다. 그 所重  
한 生命力이 엮어 놓은 作品은 永遠한 것이다. 따라서 “人  
生은 짧고 藝術은 길다”라고 한다. 모-든 設計가 作品·  
藝術이라고 生覺할 수 없다. 내 精誠이 깃들고 精熟이 깃  
은 作品이 값이 있는 것이다.

우리 1976년을 영광되게 보내드리고 1977년의 찬란한 새  
아침을 맞이할때 서로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하며 따뜻한 1977년을 맞이 합시다.

### 물 자 절 약

범국민적으로 소비절약 운동에 적극 참  
여하여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  
의 일환책으로 협회와 각 시도 지부 및 전  
회원은 자율적으로 솔선수범하자.

1. 수입물자 절약하여 국제수지 개선하자.
2. 근검절약 생활화하여 경제자립 이룩  
하자.
3. 폐물자 활용하여 국산대체 추진하자.